김제시, 공공디자인부문 대상 수상

제30회 코리아 베스트 디자인 어워드서… 도시브랜드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 우수성 인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1일 도시브랜드(BI)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가 제30회 코리아 베스트 디자인 어워드(KOREA BEST DESIGN AWARD) 공공디자인부문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30회 코리아 베스트 디자인 어워드는 지난 18일 충남 아산시에서 개최됐으며 사)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공동후원한 행사다. 지난 1995년 베스트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어워즈라는 명칭으로 시작해 30년간 개최돼 왔으며, 제품 및 공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 및 디자인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어워드다.

지난해 개발된 김제시 도시브랜드(BI)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는 김제(GIMJE)의 이니셜 G와 J를 결합해 하트와 새싹 모양이라는 이중적 이미지로 표현됐으며, 황금색 계열은 지평선의 황금벌판을, 초록색 계열은 생명이 싹트는 대지를, 파란색 계열은 수평선의 새만금을 상징하여 지평선 너머 새만금으로 나아가는 김제시의 미래성장비전을 나타낸다.

김제시만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시는 다각적 홍보와 활용을 통해 김제 브랜드에 대한 시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정 이미지를 드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제시는 21일 도시브랜드(BI)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가 제30회 코리아 베스트 디자인 어워드(KOREA BEST DESIGN AWARD) 공공디자인부문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평선의 고장, 김제시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김제시 브랜드의 위상을 높여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시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물관서 즐기는 설맞이 작은문화축전

국립전주박물관, 28 · 30일 전통문화체험 등 행사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오는 28~30일 설맞이 제29회 작은문화축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29일인 설날 당일은 휴관이다.

이에 따르면 박물관 옥외뜨락에서는 상설체험마당이 설치되어 활쏘기, 윷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와 사물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또 맷돌과 절구, 도량형 기구를 직접 만져보고 계량해 볼 수 있는 옛 생활도구 체험마당이 준비됐다.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뱀민화그리기와 도예체험은 예약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직접 병따개를 만들어볼 수 있는 '대장장이 박준하와 함께하는 대장간 체험'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0일 15시에는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인 지신밟기 공연이 박물관 옥외뜨락에서 펼쳐진다.

특히 설맞이 작은문화축전에 참가하는 뱀띠생에게는 매일 선착순 100명에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설 연휴 온 가족이 함께 박물관에서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며 "관람객 모두가 푸른 뱀의 힘과 용기로 꿈과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놀라운 성과를 내는 특별한 한 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도립미술관 서울 분관 '최정윤 개인전'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 분관에서 최정윤 개인전 '돋을 그림 옻을 입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1일 도립미술관에 따르면 작가는 2002년 닥지에 천연염색을 하고 캐스팅 기법으로 제작한 한지 입체 회화 작품을 '돋을 그림'이라 명명한 이후, 지금까지 관련 작품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회화의 고정적이고 관념적인 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린다는 행위의 한계와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이를 고안해냈다. 이 양식은 회화, 판화, 조각, 염색 등의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는데, 한지를 주재료로 선택한 이유는 한국적인 감성을 나타내는 데 적합한 표현재료로 섬세한 촉감에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관과 동양의 정신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번 이번 전시에서도 평면과 입체의 표현기법을 조화시켜, 한국적인 의식과 정서를 전달하고자 한 한지 입체 회화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는 "흐름을 거스르기보다는 그 흐름에 순응하며, 흐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지혜"라며,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려 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김병종미술관, 올해 첫 전시 개최

'낯익은 도시, 낯선 이야기' 4월 13일까지 무료 관람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2025년 첫 전시로 21일부터 '낯익은 도시, 낯선 이야기'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페이퍼 아티스트 이지희 작가가 제작한 아시아와 유럽, 남미의 대형 종이 작품들 속에 김병종 화백의 글과 그림들이 적절히 스며들었으며, 이지희 작가의 작품들은 지난해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체험전시 '페이퍼 잼(PAPER+JAM)'의 전북권 공립미술관 순회전시의 일환으로 남원을 찾게 되었다.

'낯익은 도시, 낯선 이야기'는 각종 매체에 노출된 이미지들로 이미 익숙해져 버린 도시(지역)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지, 그곳에서 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작품들을 보고 읽으며 도시(지역)와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담아낸다.

미술관 관계자는 "김병종 화백이 세계 곳곳을 직접 탐방하면서 느낀 생생한 색채적 감상들을 13개의 글과 20점의 그림들로 엮어냈다. 관람객들은 이지희 작가가 종이로 제작한 압도적인 입체 작품들 속에서 김병종 화백의 반짝거리는 글과 그림도 만나게 될 것"이라며 전시실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약속했다.

전시는 1월 21일부터 4월 13일까지(매주 월요일 휴관) 무료 관람으로, 설 연휴 기간에는 대체공휴일인 27일을 포함해 30일까지 개관하고 대신 31일은 휴관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벽천미술관 기획전시 '봄春, 자연의 생명력을 꿈꾸며'

김제시 벽천미술관은 2025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첫 번째 기획전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벽천미술관 개관 당시 기증받은 작품 22점을 엄선해 '봄春, 자연의 생명력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오는 4월 20일까지 개최한다.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사계절의 자연은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삭막한 겨울이 화사하고 초록색으로 덮인 봄으로 바뀌고, 햇볕이 뜨거운 여름이 울긋불긋한 가을로 변하면 자연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화폭에 흐르는 감정의 기조는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의 움직임과 생명력에 관한 내용으로 따뜻하고 위로하는 시선을 그려내고 있다.

강인한 생명력이 움트는 봄을 수십, 수백 번의 붓질, 혹은 간결한 선으로 그려낸 스케치 등을 통해 강렬하게, 때론 간결하게 표현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다양한 품종의 꽃, 풍경, 나무, 식물 등을 주제로 해 색감이 전반적으로 화려하지만, 스케치로 표현된 작품을 통해 적절한 색의 비율을 맞췄다.

전시 구성으로는 산수화, 풍경화, 스케치 등 총 22점을 전시했다. 그중 화조팔폭병풍은 벽천미술관 최초 공개 작품인데, 은은한 수묵담채로 꽃과 새를 표현한 작품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산 백제왕궁박물관,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사업 교육 개발 부문 공모 선정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주관하는 '2025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사업' 교육 개발 부문 공모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사업은 지역 박물관, 미술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기획전시, 교육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백제왕궁박물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백제왕궁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아이들이 백제왕궁의 가치와 역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이재춘 기자